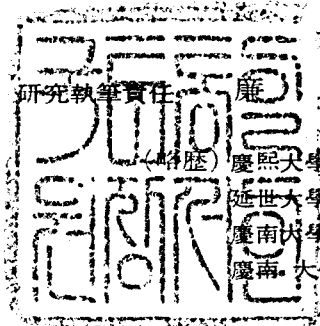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比較

民族史的 正統性에 立脚한 南北韓 價值觀形成에 關한 比較



研究執筆責任

龐弘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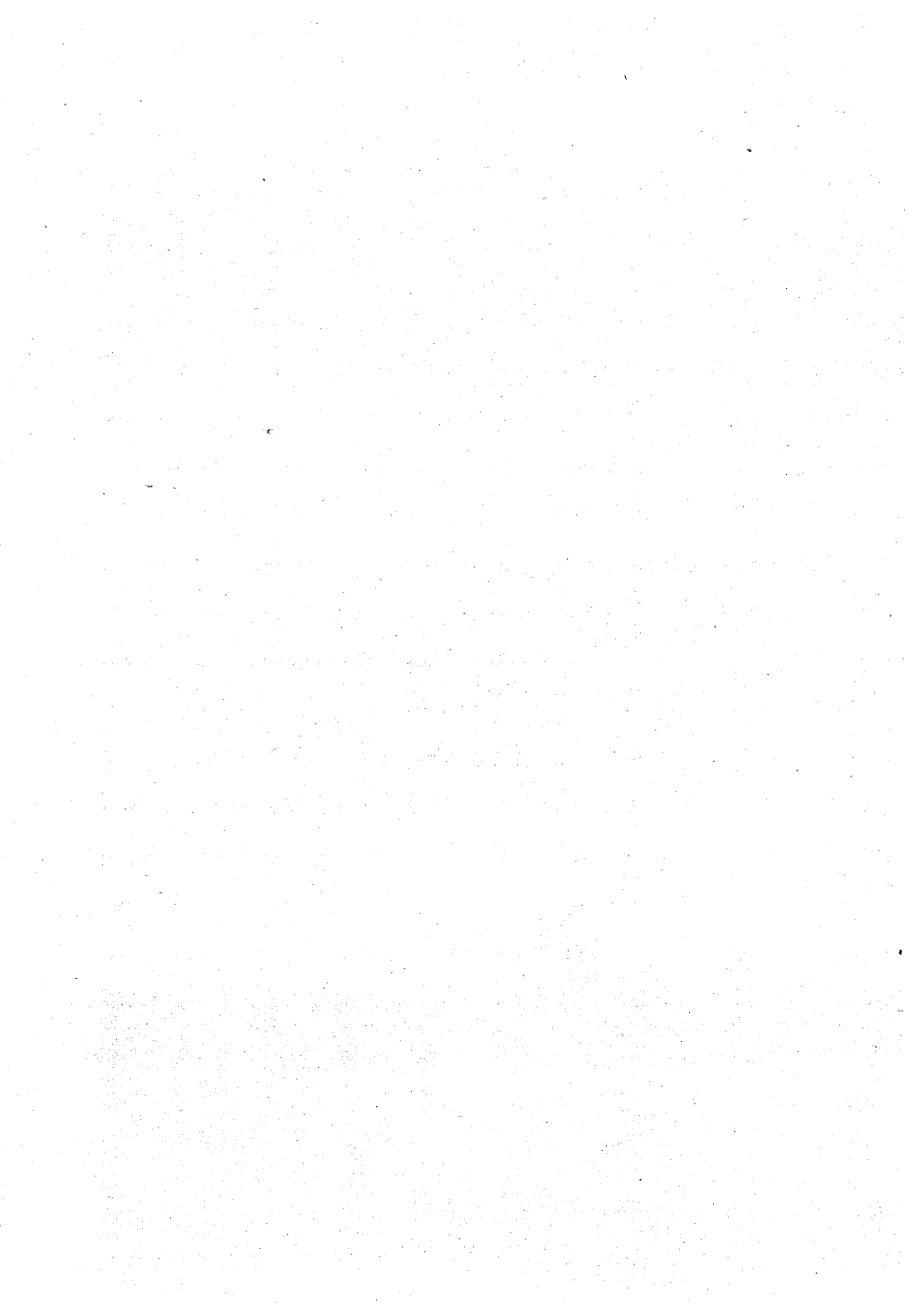
(略歴) 慶熙大學校 政治外交學科卒 (1969)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卒 (行政碩士1974)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研究委員
慶南大學校 專任講師 (1976年 現在)

刊行責任 朴 竣 弘 (調査研究室 研究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序 文	7
第1章 価値観形成の一般理論	9
第2章 韓国民族史観の形成過程	27
第3章 北韓の政治社会化と価値観形成	41
第4章 綜合討議 및 結論	73
第1節 세미나 概要	75
第2節 綜合討議	77
第3節 結 論	79



序 文

이 報告書는 크게 두 部分으로 나눈다. 한 部分은 題目대로 南北韓의 價值觀中 어느쪽이 民族史的인 正統性을 繼承하였느냐를 究明하는 것이고 다른 한 部分은 北韓의 價值觀이 變化할 수 있는지의 可否 또 統一에 있어서 價值觀의 同質性 確保가 어느정도 實地한 가를 心理學的 次元에서 把握하는데 있다.

이러한 目標에 接近하기 위해서 먼저 ① 價值觀形成과 變化에 관한 一般理論 ② 南韓의 價值觀形成過程 ③ 北韓의 價值觀形成過程에 관한 論文을 準備했고 이 세論文間의 關聯性 및 問題點을 檢討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当初 報告書를 讀한 세미나에서 民族史的 正統性에 관한 概念을 把握하고 이에 준해서 南北韓의 價值觀을 比較해보자는 것이었다.

한편 北韓의 價值觀이 正統性을 欠如한 異端文化的 所産이라면 그러한 價值觀의 變化可能性을 檢討하는 것도 關心範圍였다.

그러나 價值觀研究의 必須要件인 서베이, 인터뷰 등 經驗的 資料의 求得이 不可能한 狀態에서 北韓의 價值觀을 把握한다는 方法論上의 限界點때문에 만족한 만한 論文의 作成 및 討論이 不可能하

있음을告白하지 않을 수 없다. 4時間餘의 열띤 討論이었지만
主題하고는 거리가 있는 內容이었으며 明確한 結論에 到達하지 못
했다. 하지만 北韓의 價值觀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政治文化的 接
近法을 원용한 것이라든지 價值交換 問題를 心理學的 理論으로 體
系化한 것은 큰 收穫이라 아니할 수 없고 特히 諸論證의 結果
民族史的 正統性에 입각한 價值觀의 定位를 整理할 수 있었음은
有益했다고 볼 수 있다.

本研究에 있어서 研究費를 支援한 國土統一院側과 主題發表와 討
論에 參加해 주신 人士여러분께 謝意를 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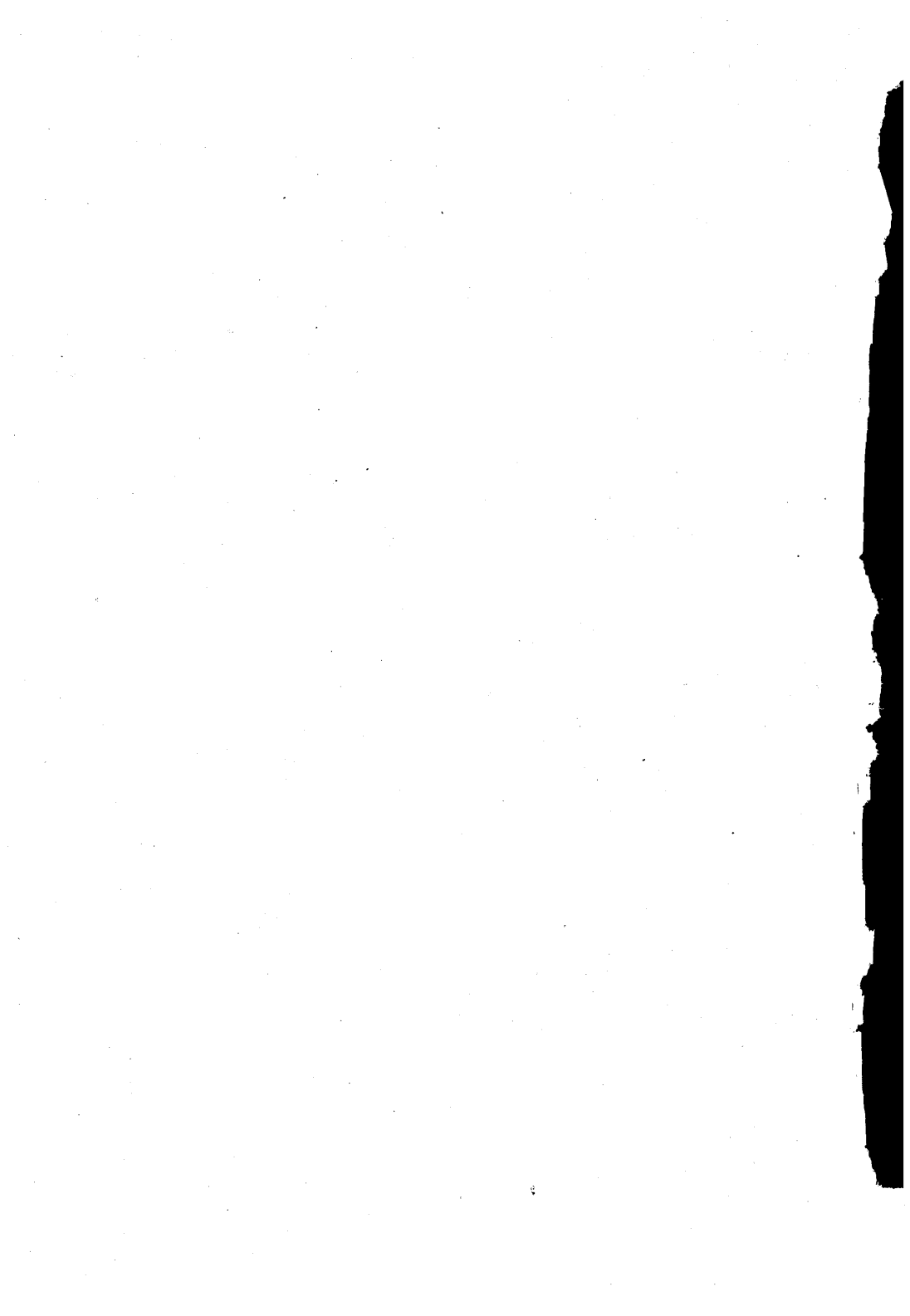
1975. 9.

慶南大學極東問題研究所長 朴 在 圭

第 1 章 價值觀形成と 一般理論

尹 泰 林

(哲学博士，慶南大学長)



(一)

價值觀 (Value Orientation) 이란 用語는 主로 R.Linton 을 중심으로 하여 文化人類學者들에 의하여 發展된 概念으로서 한 文化의 核心的인 要素를 말한다.

態度 (attitude) 와 類似한 것이지만 態度란 社會的事物 혹은 行爲에 對한 個人的 肯定的 혹은 否定的 反應으로서 情緒的인 傾向 (set, disposition, tendency) 을 뜻하다. 다시 말하면 好, 不好로 反應하는 感情의 色調 (Feeling tone) 을 隨伴하는 동시에 經驗의 結果이다. (J.P.Guilford)

그러나 價值觀은 좀더 이보다는 複合的인 概念으로서 人間行爲와 思想에 對해 秩序와 方向을 提示하고 評價的인 三要素인 認知的 (Cognitive), 情意的 (Affective), 方向的 (directive) 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진 總合的인 것으로 一定한 類型을 가지고 있다. (F.R.Kluckhohn & F.L.Strodbeck,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 1961)

態度, 價值觀이 다 같이 行爲를 決定하는 內部深層에 속하는

點은 共通이지만 態度는 個人的 次元에서이고 價值觀은 文化的 次元에서 解釋되는 概念이라 할 수 있다.

즉 價值觀은 文化的 產物로서 學習을 通하여 內面化되어 動機化될 수있고 態度보다는 좀더 抽象的 概念이고 評價의 基準 (evaluated criteria)이 되어 있어 個人的 心理的 組織을 體系化하고 行動의 統一을 이룩하고 安全을 유지하기 위해 必要한 概念이라 할수 있다.

(二)

價值觀을 測定하는데에는 意見調查法 (Census of opinion) 點類尺度法 (Point scale Method), 投射的方法 (Projective Technique) 등이 있으나 綜合評定法 (Summated Rating Method)이 가장 보편적이다. 예컨대 價值觀 領域을 社会的 價值觀, 政治的 價值觀, 經濟的 價值觀, 家庭的價值觀, 道德倫理的 價值觀 宗教的價值觀 등으로 分類하고 社会的價值觀을 細分하여 社会風潮 人間關係 大衆化, 社会移動으로 政治的 價值觀은 國家安保 政治意識 國家政策 對外 觀으로, 經濟的 價值觀을 職業意識 經濟政策 經濟行動 經濟階層으로, 道德倫理的 價值觀을 人生觀, 傳統倫理 行動規範 外來倫理

等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統合하는 것이다.

(三)

価値觀은 어떠한 特定社會의 基本的인 構造속에서 形成되는 특수한 文化的 產物이다. 즉,

그 社會를 構成하는 基本的인 構造는 여러 行動속에 反映될 것이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자바島에서 東으로 600 마일 떨어진곳에 살고 있는 파프안系인 알로族 (Alorese) 의 특성은 不信이다.

마라리아, 학질, 마마, 나병 (癩病) 等 熱帶地方에 흔한 病이 流行하는 地方인데 生計를 유지하기 위해 重勞働이 要求되고 땅도 肥沃하지 못해 成人뿐만 아니라 女子,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심한 勞働에 시달리고 있다. 乳兒가 出生하여 어머니의 保護를 받는것은 生後 2 週日 뿐이다. 그以上 돌보아 줄 여유가 없이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하고 아버지는 물론 兄弟까지 동생을 돌보아 주는데 關心마저 없다.

父母의 情이란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다. 人間觀, 世界觀을 形成하는 가장 重要的 時期에 먹는것도 充分치 못하며 愛情과 飮食

의 欠乏은 成長後에도 서로 不信하고 疑心하고 自戕性 野望도 없고 남을 憎惡하는 가운데에 諷戒心만 늘어나 不安, 不信, 질투, 거짓말, 자랑, 虛飾, 過少評價 등이 그들의 특징이다.

결국 原因은 父母 특히 어머니들의 過重한 勞働으로 아이들이 충분한 愛情을 받을 여유가 없고 結婚도 돈을 주고 新婦를 사오거나 반대로 新婦쪽에서 持參金을 가져와야 하는등 本人의 意思에 依하지 않고서 結婚이 이루어지는등 지나친 抑壓된 感情의 發露라 볼수 있다. (A.Kardiner, The Psychological Frontiers of Society. 1950).

北韓에서 子女가 태어날때 家庭에서의 父母의 保育이 아니라 託兒所에 委託되어 키워진다는거나 어려서부터 愛情보다 특수한 政治的 이데올로기 밑에서 길러워진다는것. 生母가 어린이를 돌볼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는것 自体가 非正常的인 育兒方法인데다가 특수한 政治意識을 強發하는 것이 어떠한 價值觀을 形成하는가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四)

A.Kardiner는 價值觀 形成의 基礎가 되는 性格을 形成하는데 세 가지 前提條件을 들었다.

① 個人이 갖나서 부터 받는 어려서의 經驗은 終身토록 그에서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고

② 한 社會속에서 共通의으로 받는 經驗은 共通의인 性格을 形成하고

③ 家庭에 따라 若干의 差異는 있더라도 한 社會가 共通의으로 가지고 있는 어린이 養育의 方法은 文化的으로 비슷하다. 즉 社會에 따라 어린이 기르는 方法은 다르다.

갖나서부터 어머니가 항상 끼고자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가 願할때마다 젖을 주느냐 아니면 따로 獨房에 재우고, 一定한 時間이 아니면 주지 않거나 母乳를 먹이지 않는 習性의 差異는 그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精神的 安定感을 別途로 생각할때 어린이가 父母에게 依存하느냐 獨立性이 強하느냐 形成하는 하나의 尺度가 될 것이다.

成長하는 幼少兒期를 걸쳐 青年期에 이르는 過程에서 그들에게 價值觀을 形成해주는 要因으로서 그 社會의 慣習과 더불어 그 社

會 特有의 制度 (institution) 을 들수 있다. (C.Sigm, Psychanalytic Theories of Personality)

家族의 構成, 어린이에 대한 基本的인 訓練方法의 有無, 性的인 禁忌, 生計維持의 方途 등은 第一次의인 制度이고 宗教 儀式, 思考方式 등은 第二次의이라 할 수 있다.

大家族 밑에서 成長했으나 父母中心의 家族 밑에서 成長했으나. 잘못이 있어도 体罰, 꾸지람을 加하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性에 대해 엄격한 禁忌를 쓰느냐 예컨대 어려서부터 어린이의 性器를 露出시키지 못하게 하느냐 혹은 그런점에 無關心하느냐, 生計維持의 方法이 自由스러운 職業선택에서 이루어지느냐 혹은 強制勞働이나 自己意思아닌 壓力에 의한 就勞方法에 依한 것이냐는 가장 其本的인 価値觀 形成의 要素가 될 것이고 아무리 勞働을 해도 그것이 自己에게 돌아오지 않거나 奴隸에 依하여 빼앗기거나 한다면 不滿 反抗을 加長시킬 것이다.

自由스러운 信仰 즉 宗教의 自由가 認定되느냐 몹시 形式的인 儀式을 좋아하느냐 內容보다도 겉보이기 數字놀이 좋아 맞추어 놀기애나 齋戒이나 아니냐는 물론 創意가 尊重되는 社會냐 過去 旧習, 先例를 踏襲시키고 平準化 劃一化를 이룩하는데 重點을 두느냐

는 그 社會에 進步를 가져오느냐 沈滯를 가져오느냐의 分岐點이
될은 勿論이다.

그러나 우리가 重要視해야 할것은 個人과 制度는 相互間 不斷的
相乘作用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특수한 社會制度는 그制度에 符合되는 人物을 만들어내고 個
人の 이러한 價值觀은 그 社會를 더욱 堅固하게 그制度를 強化시
키는 것이다.

制度나 社會의 重圧은 個人의 特性을 抹殺시키는 동시에 個人에
게 不安과 威脅을 주고 集團은 그 社會를 더한층 이에 맞도록
더욱 強化시키기 때문에 個人이 그 集團에서 脱出하기가 힘들다.

(五)

P.Kluckhohn은 價值觀 尺定の 要因으로 다섯가지를 들었다.

- ① 人間 本來의 內的인 素因
- ② 自然을 對하는 人間の 態度
- ③ 時間에 對한 觀念
- ④ 價值있다고 생각하는 性向
- ⑤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樣相

①은 人間이 元來 타고 나기를 善하게 타고났느냐 惡하게 타고
났더라도 善한 方向으로 改善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②는 人間이 항상 自然을 두려워 하고 天災地變은 人力으로는 어
릴수 없는 自然 威脅으로 받아들이느냐 反對로 人間の 理想이나
秩序의 힘으로 自然을 征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이고

③은 過去를 回想하는데에 価値를 두느냐 現在를 享樂하는 方向
으로 기우느냐 혹은 未來에 보다더 価値를 두고 未來指向의인 面
에 關心을 두느냐가 문제이고

④는 価値있다고 생각하는 性向은 現在에 滿足하고 現在制度에
滿足하느냐 혹은 行動으로 무엇인가 變化를 가져오는 움직이고 活
動하는 性向이냐가 문제이고

⑤는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는 支配者 被支配者의 關係, 地位의
上下에서 오는 服從 從屬관계나 祖上崇拜 等の 垂直關係를 重視하
느냐 혹은 個別的인 人間尊重的 橫的인 人間關係를 重視하느냐의
문제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系 美國人 中에는 醫師의 診療를 拒否할때가 있는데 그들
은 自己가 죽는것이 主의 뜻이라면 죽을 따름이라고 한다.

自然을 征服하는것 보다는 自然과 人間을 하나의 調和로 보는

것은 中國人의 共通의인 思想이고 近代式 汽船을 보여준 美國人
에게 自己의 祖上들이 당신네 美國人보다 먼저 이런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對答한것은 中國人이었다 한다.

現在에 滿足치않고 變化나 未來에 너 價値를 두는것은 美國人의
의 思考方式이다.

女性에 대해 抑壓的인 態度를 取하느냐 아니냐 父母의 權威를
한성 앞장 세우느냐 그보다도 政治 權力者에게 보다 많은 무게를
두느냐 더 묻다 하더라도 그것이 真心에서 올라온 것이냐 飯餚
에서 나온것이냐는 二次大戰을 前後하여 表明된 日本人의 두가지
相反된 言動으로서 事實을 엿볼 수 있다.

(六)

非指示的 카운셀링 (Non-directive counseling)의 創始者인

L. Rogers 는 오랜동안의 精神治療의 經驗을 통해서 人間의 本性이
根本적으로 惡意에 차고 破毀的인 것이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積
極的이고 建設的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動物의 세계에서도 가장 貪慾的인 獅가 그가 굶주린 때
다른 사슴, 말을 자기보다 弱한 動物을 잡아 먹으나 때만 채우면

그만이지 무턱대고 다른 動物을 잡아먹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動物의 세계를 통하여 보는바와 같이 人間도 아무 威脅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고 자유스러울 때는 남에게 依支하려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抑制할 줄 알고 殺伐하거나 충동적이거나 反社會的인 것을 버리고 도리어 協調한다고들 했다.

(L.Rogeros, A Note in the Nature of M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 vol 4, No.3 1957)

E.Erikson 이 독일의 Hitler 와 러시아의 作家 Gorki 의 幼年時期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示唆을 던져준다. (Childhood and Society)

Hitler 의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23年이나 年長者이었고 주정뱅이요 強壯的이고 자기 아내를 아들 앞에서 구타하는것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었다. 선량하고 착한 어머니를 그는 사랑하는 대신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했고 항상 사랑과 미움의 갈등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으니 독일인을 救하겠다는 一念과 더불어 猶太人등 猶太民族 以外の 사람을 蔑視 虐待하는 마음이 共存하고 있었으니 精神病學에서 말하는 妄想症 (Paranoia) 이었고 加虐的 (Sadistic) 한 어린이로서 男子이면서 이를 덮어 숨기기 위한 過剩補償的인 (over-

compensatory) 소년시절을 보내면서 결국은 強迫觀念의인 殺人
으로 그를 물고간 성격을 유년시절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

忘想症은 精神分裂症에 속하는 정신병으로 過大忘想을 가진 本人
은 自身을 忘想患者로 보지않고 正常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떠한 무서운 行動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는 存在이다. 주위에서
그 忘想을 깨워 주기에는 精神病的인 治療以外에는 어려운 것이다.

한 사람의 어려서 받은 經驗이 成長後 얼마나 큰 罪過를 저지
르는지는 이러한 例로서도 알 수 있지만 러시아의 作家 Maxim
Gorki (1868-1936)도 生存의 無意味와 극도의 反抗 속에서 가
난을 저주하면서 青年時代를 보내고 共產黨에 加入하는 경로가
알려져 있다. 寡婦어머니 밑에서 祖父의 차감고도 深한 매질속에
서 자랐으니 그의 몸에는 맺 자국이 적지않게 나타나 있었고 그의
祖父는 맛있는 과자를 나어린 그의 코 앞에 보여주면서 주지도
않는 sad0-masochistic한 특수한 성격 소유자인 祖父 밑에서
자랐다. 그가 몇번인가 自殺을 決意하고 流浪의 길을 떠나간 것
은 이유 있는 일이었다.

슬라브 계통의 農夫들은 원래는 溫順한 民族이었지만 불식비키
(Bolshevik)의 政治下가 되면서 變質된 것이다.

3. Erikson이 지적한대로 人間性 혹은 價值觀 變革에 影響을 주는것은 不安이라는 恐怖이다. 굶주림, 生命의 脅威 財産파탈 病魔의 威脅등 마음의 不安은 그의 性格이나 價值觀을 一變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난은 가장 큰 不安이다.

成人은 그가 어느 分野에서의 指導者이건 어린時節을 經過한다. 어릴때 보고 듣고 배운것은 腦, 手, 足을 通하여 그가 제척하는데에 하나의 動機 懸底를 걸정짓는데 影響을 준다.

일을 成就해 볼라고 할 때 어려서의 經驗은 現實을 내다보는데 先入觀을 던져주고 그 判斷力에 큰 從容을 가져오게 한다.

不安과 恐怖는 다르다. 恐怖는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現實의인 危險의 存在이고 不安은 좀더 漠然한 非現實의인 差異가 있다. 不安은 어떤 自律性(autonomy)을 잃을까 하는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E.Erikson의 精神分析學的 臨床的인 研究는 어려서 經驗한 不安과 그가 成長後 개인문란 이나리 社會에까지 어떤 變化를 이르게 왔는가의 密接한 相互關係를 설명한 것이다.

같은 日本人이면서도 오끼나와 아마미(奄美)大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徳川家の 武斷圧力 政治를 먼 섬에 떨어져 있어서 받지 않

있기 때문에 일반 日本人이 가지고 있는 強迫觀念의 특질이 없고 生活을 즐길줄 알 수가 있다 한다 (H.Spitzer, Psychoanalytic Approach to the Japanese Character, G.Roheim, Psychoanalysis and Society.)

Haring은 國民性 形成에 있어서 壓制政治는 어려서의 어린 教育以上으로 중대한 影響을 주는 것이라 했다. 政治的인 暴壓은 恐怖를 만들어내고 服從 獨一性, 不信, 지나친 警戒心을 만들어 낸다고 했다. (D.Haring Personal Character and Cultural Milieu) .

北韓에 居住하는 국민들의 価値觀이 어떤 것이고 從來의 우리 祖上들이 지녔던 혹은 現在의 우리의 것과 얼마나 變容된 것이냐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解放前 그곳에서 青年期 以上을 보낸 사람들로서는 우리의 것과 별로 크게 다를 것이 없으리라 믿어지는 反面 解放後, 그곳에 태어나 철저하고 嚴한 政治 壓迫을 로기 밑에서 成長한 그들의 思考나 行動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価値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L.Rogers의 人間本質을 밝힌 것으로 내다본다면 또한 民族의 單一性 同質인 점을 勘案할때 앞으로 相當한 時日은 要할

기 모르나 樂觀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民族性이란 恒時 不變하는 것이 아니고 時代와 歷史에 따라 流動變化 하기 때문에 合理的한 方向으로 나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들의 價值觀은 強要된 밖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外에서 받는 그들의 教育 生活를 생각할 때 容易하게 變化를 가져오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꾸준한 努力과 이에 對한 소상한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歐美 先進社會에서 일반적으로 通用되는 價值觀은 다음과 같다. (G. Myrdal, Asian Drama I)

1. 能 率
2. 勤 勉
3. 秩 序
4. 時間嚴守
5. 節 約
6. 正 直
7. 合理性 (情實, 偏見, 困疾의 習性等의 排除)
8. 變化에 對한 準備性

9. 일어날 수 있는 여러 境遇를 미리 想定해 두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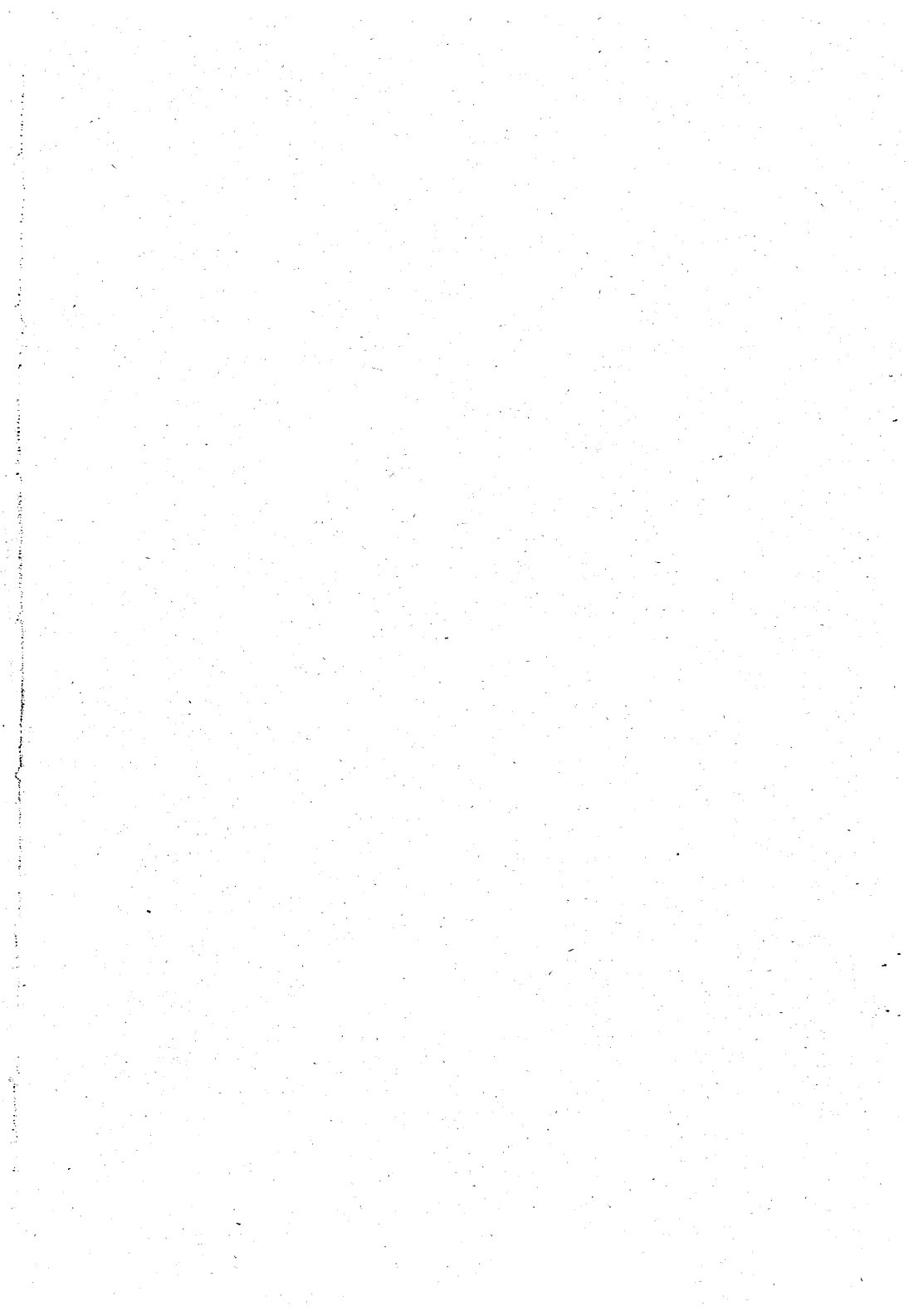
10. 進取的 冒險的 企業

11. 誠實과 獨立心

12. 協 同

13. 長期的 眼目

以上 13 가지 다.



第2章 韓國民族史觀의 形成過程

— 南韓의 價值觀 形成過程研究의 一環으로서 —

金 南 奎
(慶南大學助教授)



第1節 序 說

歴史研究에 있어서 選択과 体系化作業의 必要性을 認定할 때 이러한 作業의 準拠가 되는 一定한 価値觀의 必要도 역시 인정되는 것이고 이 歴史研究에 있어서 準拠가 되는 바의 価値觀이 歴史觀 즉 史觀이라 하겠다. 史觀問題의 考究는 이와같은 意味에서 価値觀研究의 一部分으로서의 位置를 附与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前提 아래 韓國民族史觀의 形成過程을 살펴 보겠다:

韓國民族史觀을 韓國史에 있어서 民族主義에 높은 정도의 가치를 認定하는 그러한 立場에서는 歴史觀이라고 본다면 이제 民族主義란 무엇이나라는 것이 問題가 되겠다. 이미 여러 사람에 의해 指摘된 바이지만 民族主義의 概念은 이제껏 多樣하게 規定되고 있어서 「民族主義에 關하여 기술한 수다한 研究나 著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가지 공통된 사실은 이들의 研究에서 사용되는 民族主義라는 어휘가 학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陳德奎, 民族主義의 展開와 限界, 文學과 知性 15号) 라고까지 일

결어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李用熙의 「民族主義는 내 나라라고 하는 政治, 經濟, 文化体制의 形成과 高揚을 民族國民이라는 人的인面에서 正當化하려는 集團意思」(李用熙, 現代民族主義, 新東亞 1973年 9月号)라는 定義에 따르기로 한다. 이를 韓國의 民族主義라는 立場에서 筆者 나름대로 정리하면 韓國民族國家라 이름하는 바의 따라서 他(國家)와는 구별되는 韓民族의 独自の인 政治, 經濟, 文化体制의 形成과 高揚을 韓國民族의 立場에서 正當化하는 集團意思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韓國民族史觀은 韓國民族國家라 이름하는 韓民族의 独自の인 政治, 經濟, 文化 등 諸体制의 形成과 高揚을 설명해 주는 만일 이러한 諸体制가 現在 充分히 形成되고 高揚되어 있다면 그러한 現實을 歷史의으로 因果關係를 밝히 설명하는 그리고 만일 이러한 諸体制의 形成과 高揚이 未來의 目標라면 그 目標의 道程을 歷史의으로 提示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歷史觀이라 하겠다.

第2節 韓國民族史觀形成의 傳統的 要素

韓國民族史觀을 以上과 같이 볼 때, 우리는 近代 以前에 있어서도 注目할만한 史家와 史書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高麗朝의 後期에 엮어진 一然의 三國遺事와 李承休의 帝王
 韻記는 모두 韓國史를 단군으로부터 記述하고 있다. 異民族 元의
 干涉을 받던 時期에 엮어진 이들 史書에 단군說話가 收錄된 것은
 高句麗系, 百濟系, 新羅系의 모든 高麗人에게 共同的 始祖가 存在함
 을 強調하려는 것이고 또 三國遺事에서 古代的 傳承이 尊重된 것
 은 民族史의 要求함을 主張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두 國難에 즈음하
 여 民族的 團結을 呼訴하기 爲한 것이라 評價되고 있다. 다시
 朝鮮王朝의 前期에 와서는 당시의 社會的 主導勢力인 兩班士大夫層
 이 高麗末에 있어서의 民族的 覺醒이라는 精神的 遺産을 이어받고
 또 한편으로는 強烈的 民族的 性向을 內包하는 思想인 性理學을
 받아들여 이를 指導理念으로 삼음으로서 自然히 文化面에서의 民族
 의 獨自性을 追求 하였던 바 이러한 傾向은 歷史學에 있어서는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三國史節要 等 民族自體의 歷史書의
 활발한 編纂으로 나타났다고 일컬어진다.

一然의 三國遺事が 敎를 그 思想的 基盤으로 삼고 있고 李承
 休의 帝王韻記는 순전한 韓國史는 아니며 朝鮮前期의 諸史書들이
 깊이 性理學的 價值觀에 立脚하고 있으나 이들 麗末~鮮初의 史書
 들이 民族的 獨自性을 追求하는 觀點에서 쓰여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上記 史書編纂者の 史觀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韓國民族史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당시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民族國家의 形成 高揚이 實現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이 將來의 目標가 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朝鮮朝後期の 實學者들의 史觀은 特히 主目된다. 實學으로 하여금 學問으로서의 地位를 確立케 했다고 일컬어지는 李翼은 그 歷史認識에 있어서 유교적 觀念을 배제하여 歷史를 客觀的으로 認識했다. 또 華夷思想을 철저히 批判하여 우리나라 歷史의 中國史에 對한 獨自性을 認識하고 우리나라의 立場에서 國사를 서술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史論은 近代의 史學에 一步 接近한 것이라 理解된다. (宋贊植, 星湖의 새로운 史論, 白山學報 第8號) 스승의 史論을 繼承하여 韓國史把握에 體系性을 세운 安鼎福의 史觀(李佑成 李朝後期近世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展開, 歷史學報 31輯) 韓國史의 一部로서의 渤海史에 對한 認識이 明示되어 있는 柳得恭의 史觀 등을 일일이 살필 것도 없이 實學思想의 특징은 近代志向의 이고 民族主義의 傾向을 띠는 것이었다. (千寬宇, 朝鮮後期 實學의 概念 再論, 韓國史의 再發見) 그러나 이들 實學派의 民族意識은 體系의 限 것이 못되었고 또 時代的 限界性 때문에 그 民族

意識은 韓國民族運動이나 그것을 指導하는 아데오로기로 發展하지 못했다(千寬宇, 韓國民族主義의 構造, 新東亞 1973年 9月) 따라
서, 우리는 實學者들의 史觀을 진정한 意味에서의 韓國民族史觀이라
認定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實學派 思想의 특히 그 史觀의 民族主義
의 性格은 重要的 뜻을 가진다. 이 史觀이 주로는 開化派에 依
해 繼承 發展되어 혹은 張志淵의 大韓疆域考를 태어나게 했으며
더러는 衛正斥邪派에 影響하여 혹은 黃炫의 梅泉野錄을 이루어지게
하고 다시 나아가서는 朴殷植 申禾浩 等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
韓國의 近代民族史學을 成立시키는 데까지 達國되기 때문이다(金泳鎭
實學과 開化思想의 聯繫問題, 韓國史研究 8, 千寬宇, 朝鮮後期實學의
概念再論 韓國史의 再發見 申奭鎭 梅泉野錄 解說) 또 開化派과
衛正斥邪派의 史觀도 實學派의 史觀과 같이 이를 진정한 의미에서
의 韓國民族史觀이라 인정할 수 없다. 우선 開化派에 있어서 民
衆은 그들과 同質性을 가지는 民族의 主體的 構成員이기 보다 혼
히 그들에 의해 啓蒙되어야 할 無知한 存在였고 衛正斥邪派가 목
적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封建制度를 再整備 強化하는 것이었다.

(金泳鎭, 侵略과 抵抗의 두가지 樣態, 新東亞 1970年 8月号)

金義煥, 義兵運動史 3 斥邪衛正思想과 義兵運動) 民族精成員 상호 간의 同質性을 前提로 하는 共同体意識의 發生이 民族形成의 要件임을 생각할 때 위와 같은 思想을 그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開化派와 衛正斥邪派의 史觀이 진정한 韓國民族史觀이라 일컬어지기 어렵다.

第3節 韓國民族史觀의 成立

日本帝國主義가 韓民族 共同의 敵으로 出現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韓國民族과 峻別되는 他者가 韓國民族 전체의 運命에 危脅을 가하는 存在로서 出現함으로써 獨立協會의 活動을 契機로 韓國民族主義가 抬頭하고 日帝의 韓國強占 아래 더욱 發展한다.

이러한 時代性을 背景으로 韓國民族史學이 成立되는 것이지만 이때의 대표적 民族史學者로 李基白은 朴殷植, 鄭寅普, 申采浩, 崔南善, 文一平 등을 들고있다. 이들 史學者들은 韓國史의 根本이 되는 것으로 자기 魂, 魂, 魂, 郎家思想, 朝鮮精神, 朝鮮心 등을 들고 있고 혹은 韓國民族에 獨自의인 이러한 精神의인 것의 盛衰가 곧 民族의 盛衰를 결정한다고 보았고 혹은 久遠한 歷史를 통하여 이러한 精神의인 것이 形成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史觀은

모두 이러한 韓國独自の 精神的인 것이 韓國史 發展의 根本이 된다는 立場 위에 선다. (李基白, 韓國 近代史學의 發展, 近代韓國史 論選)

그런데 이들 日帝下의 韓國民族史觀은 優秀하고 独自の인 民族的 精神의 發展에 의해 韓國民族國家의 形成, 高揚이 遂行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未來의 目標에 대한 道程을 歷史적으로 提示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韓國民族史觀의 成立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日帝下의 民族史觀은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은 「精神史觀의 特徵」 (李基白 上揭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注目할만한 傾向을 가지고 있다.

韓國民族史學의 先驅者로 일컬어지는 申采浩가 歷史를 「我와 非我的 鬭爭」 (申采浩, 朝鮮史 總論, 近代韓國史論選)으로 把握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歷史觀은 당시에 있어서는 日帝의 植民主義에 대항하는 韓國의 抵抗民族主義의 정당한 그리고 불가피한 傾向이었다. (李用熙 上揭書)

그러나 이들 日帝下 韓國民族史觀은 李基白의 所論과 같이 그 먼저의 特徵에 의해 民族의 모든 構成員이 한결같이 한가지의 抽

象的인 根本에 의해 움직인다는 觀念論에 빠지게 된다. 또 李用熙의 論旨대로 뒤에 든 傾向에 의해 我와 非我的 鬭爭이 不可避의 것이라면 抵抗民族主義가 弱者의 立場에서 正當化 되는 것과 같이 侵略主義는 強者의 立場에서 正當化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抵抗民族主義에서는 對外鬭爭이 모든 것에 優先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民族主義의 對內的 鬭爭對象인 前近代的 封建的 勢力 내지 要素와도 結合해야 하고 이는 마침내 傳統의 지나친 美化 나아가서는 國粹主義로까지 到達하게 되는 危險마저 생겨나는 것이다.

第4節 韓國民族史觀의 展開 發展

이와같은 日帝下 韓國民族史觀의 偏向性을 止揚하고 이의 새로운 展開에 努力한 사람으로는 먼저 孫晉泰가 일컬어진다. 그는 科學的 方法에 의한 個別的 史實의 糾明을 土臺로 하여 民族의 均等과 幸福, 또 이를 통한 人類社會의 發展, 向上, 平和의 齊來를 目的으로 하는 이론바 新民族主義史觀을 세웠다. (孫晉泰, 朝鮮民族史概說 緒說 李基白 上揭書) 그의 史觀은 오늘날 반드시 學界의 전반적인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事情은 그의

新民族史觀에 立脚하여 세 워진 時代区分이 自身이 쓴 概說書에 조차 적용되지 않았고 (李基白 韓國史의 時代区分 問題, 韓國史時代区分論) 그밖에 韓國史學者의 概說書에 적용된 바도 없는 것으로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은 民族史觀이 가지는 偏向性 止揚을 위한 그의 努力은 오늘날 적지 않은 韓國史學者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千寬宇가 民族主義의 內包하는바 여러 危險性을 警戒하면서 또 實證의 重要性을 잊지 않은채 民族史觀을 主張하고 있고 (千寬宇 韓國史學의 反省, 韓國史의 再發見), 辺太燮이 民族의 固有性과 優秀性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人類의 普遍性 위에서 民族의 特殊性을 理性的으로 把握하려는 그리고 民族의 歷史의 發展을 世界史的 法測性 위에서 이해하려는 歷史觀으로서의 現代的 民族史觀의 樹立을 제창하고 (辺太燮, 韓國學의 올바른 座標, 月刊中央 1974年4月号) 李基白이 孫晉泰의 新民族主義史觀을 民族的인 立場에서 實證을 통하여 얻어진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諸般史實을 獨自의으로 체계화하려는 努力으로 그리고 지난날의 歷史學의 傳統을 批判的으로 계승 발전시킨 결과로 다시 現代的 韓國史學이 跳躍台로 삼고 앞으로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할 基盤으로 評價하

고 있는 것이 (李基白, 韓國 近代史學의 發展, 近代韓國史學論選), 姜萬吉이 韓國史學界가 당면한 問題로서의 韓國史의 올바른 體系樹立과 健全한 民族史觀의 樹立을 위하여 韓國史를 하나의 發展으로 把握하고 또한 韓國史의 方向은 오로지 韓民族의 主體의 力量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信念아래 韓國史를 理解할 것을 促求하고 있는 것이 (姜萬吉, 韓國史의 觀點 韓國史의 反省), 그리고 여기에 일일이 枚擧할 수 없는 많은 韓國史學者가 韓國史에 대해 探究하고 있는 것이 적든 크든 새로운 韓國民族史觀의 發展을 위해 努力하고 있는 것이 되겠다.

第5節 結 言

이상 韓國民族史觀의 形成過程을 살펴 보았으나 이 作業은 어디까지나 先學들의 빛나는 學的成果를 史學史的으로 정리한 것에 지나지 못한다.

무릇 韓國人은 오랜 옛날부터 共通의 言語, 慣習, 政治組織 등을 形成하고 있었다. 따라서 民族的 史觀의 成立도 그 歷史가 오랜 것이다. 이러한 民族的 史觀의 成立은 朝鮮朝 後期の 實學派 歷史學에서 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高麗後期 ~ 朝鮮前期에

것을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史觀은 어느
것이거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韓國民族史觀이라 할 수는 없다. 다
만 특히 實學派의 歷史觀은 開化派 혹은 衛正斥邪系를 거쳐 申采
浩 등으로 代表되는 日帝下 韓國民族史觀의 形成에 參與하는 것이
고. 이를 批判적으로 繼承發展시킨 것이 現在 南韓의 主流的 史觀
이 되고 있는 새로운 韓國民族史觀이라 하겠다.

끝으로 附言할 것은 1960年代 이래 北韓의 史觀構造는 唯物
史觀의 外皮에도 불구하고 그 骨格은 거의 申采浩의 民族史觀의
줄거리를 踏襲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申一微 1950年代 北韓의
國史觀 形成, 北韓 40号) 韓國史學의 正統을 繼承 發展시키고
있는 南韓의 새로운 韓國民族史學이 이미 日帝下 韓國民族史觀을
克服하고 있는데 비해서 北韓의 國史觀이 日帝下 民族史觀, 더욱이
그 極限한 抵抗民族主義가 侵略主義 國粹主義로 變換될 危險性을
多分히 內包하고 있는 申采浩의 史觀을 도습하고 있다는 것은 注
目に 値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第3章 北韓의 政治社会化와 價値觀形成

康 弘 喆

(慶南大学 專任講師)

第 1 節 序 論

(1) 研究 目的

7.4 南北共同聲明의 一句節인 「體制과 理念을 超越」 하자는 統一의 意志는 現段階에서 實現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換言하면 7.4 共同聲明은 政治的 合意였으나 이러한 政治的 合意가 理念과 體制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統合理論을 다루는 많은 學者들도 主張하다시피 地域이나 國家의 統合過程에서 異質의인 政治文化의 殘存은 政治制度나 經濟構造를 接近시킨다 하여도 統合의 障礙요인으로서 重要하게 作用하는 것이다. 또한 相異한 價值, 信念, 態度 等은 構造的 接近을 방해하기 때문에 共通的으로 수락할 수 있는 政治行爲의 規範은 統合의 前提條件이 되어야 할 것이다.

韓半島의 統一問題도 例外는 아니다. 오히려 地球上의 어느 體制를 보다 理念, 制度, 價值觀이 異質의이며 여기에다 敵對, 暴力的, 感情上 問題까지 相乘作用을 하기 때문에 統一意志에 심한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고로 統一論理를 展開하기에 앞서 北韓住民의 價值, 信念, 態度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당위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다.

本稿는 以上과 같은 問題意識下에 北韓의 政治文化形成의 過程인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의 機構, 內容, 主題等을 分析해 보고자 한다.

(2) 共產體系: 政治文化研究의 意義

文化라는 用語의 定義가 學者에 따라 多樣하듯이 政治文化의 概念도 廣範圍하다.

一般的으로 政治文化의 屬性은 政府가 어떻게 行動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價值, 信念 및 感情上의 態度이

다. 다만 政治文化의 研究에 있어서 分析의 基準이나 강조점이

다를 뿐이다. 즉, 달(Robert Dahl)은 政治的 相異의 諸패턴을

說明하는 要因으로 政治文化를 보았고 파이(Lucian Pye)는 新生

國의 政治發展에 關聯된 政治文化의 特徵에 특별한 關心을 가졌다.

政治文化의 研究는 民族이 반드시 類似하지 않고 政治風土는 各

民族마다 相異하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各體制의 構成員은 자신의 政治構造의 形態와 本質을 規定하는 特

有한 一聯의 政治的 價值를 가지고 있다.

政治文化는 生活方式, 政治行態를 결정하는데 必要한 구성원의 理想, 信念, 權威에 對한 態度, 規範 등을 具體化시킨 것이기 때문에 政治文化를 研究함에 있어서는 體系의 構造와 관련시켜야 한다.

最近 이러한 政治文化의 研究가 共產體系의 分析 틀로서 援用되고 있는데 이것은 첫째로 政治文化의 接近은 共產體系의 公式的인 制度나 機構 뿐만아니라 非公式的인 文化的 要因을 分析하기 때문에 僞別記述的 (idiographic) 이거나 方法論的 例外主義 (methodological exceptionalism) 에서 탈피하여 比較體系論的 視角에서 共產體系를 分析할 수 있다는 利點에서이다. 둘째로 共產政治體系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革命的 리더십의 性格, 맑스·레닌主義的 이데올로기가, 住民의 政治定向과 어떠한 相互關係를 가지고 있는가를 究明해야 한다.

이렇게 共產政治體系의 變化에 接近하려는 立場은 어차피 政治文化論的 分析을 중요시 함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本稿에서 關心을 갖는 政治文化研究의 方法은 政治社會化過程을 規明하는데 있다. 人間의 個性形成에 관련되온 모든 習得過程 (learnig process) 을 통해 나타나는 社會化의 역할을 中요시하는 理由는 政治定向이 곧 이러한 社會化過程을 통해서 形成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共產体制은 特定한 政治文化를 창조하기 위해서 政治社会機構을 통제하고 政治定向을 만드는 諸過程마다 政治엘리트의 매카니즘이 作用한다. 歷史교과서를 수정하고 敎育体系를 擴張하는 것이 그 例이다. 蘇聯이나 東歐의 政治文化研究는 例外로 하더라도 北韓이나 中共은 政治엘리트의 運用法(modus operandi)을 大衆文化와 區別시킬 수 없다. 統治者の 「運營指針」이 그대로 住民에게 주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政治社会化는 共產体制의 有用한 工具이 되는 것이다.¹⁾

共產体系의 政治文化的 接近이 중요하게 認識되면서도 實際로 많은 制限이 있다. 政治文化研究는 社会調査方法이 가장 理想的인 接近法이나 썬베이. 인터뷰 등 經驗的 資料(empirical data)의 求得이 거의 不可能하다.

1) 蘇聯의 政治社会化 研究는 Joel J. Schwartz, "The Elusive [New Soviet Man]" Problems of Communism (September - October, 1973) pp.39-50 參照
中共의 政治社会化 研究는 Ronald N. Montaperto, "The Maoist Approach" Ibid pp.51-63 參照
東歐의 政治社会化 研究는 Ivan Volgyes, "Political Socialization in Eastern Europe," Ibid (11-12, 1973) pp.46-55 參照

東歐圈이나 스탈린死後의 蘇聯에서는 制限된 性質이나 直接的인 관찰이나 口頭調査가 可能해졌는데 北韓과 같은 폐쇄사회에서는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는 자료 수집에 애로가 많고 資料 자체의 신뢰도 도 문제가 된다.

第 2 節 北韓의 政治文化와 革命的 이데올로기

政治文化는 現行体制에 대한 忠誠의 源泉과 心理的 一體感을 內 包含한다. 다시 말해 政治文化는 指導者에 대한 信任의 程度, 指導 者가 享有하는 信賴 그리고 指導者가 할 수 있고, 없는 일을 規 定해 준다. 특히 共產体系의 政治文化는 조위트(Kenneth Jowitt)의 말대로 政治的 構造와 關聯시켜서 研究되어야 한다. 構造와 文化는 반드시 一致할 必要는 없지만 相互인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²⁾

北韓은 忠誠心, 心理的 一體化의 源泉을 革命傳統과 金日成唯一思 想에서 찾고 政治構造의 特徵은 權力構造의 정상에 1人의 絶對的

2) Kenneth Jowitt, " An Organiza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culture in Marxist-Leninist sys- te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 VIII, No.3 (September, 1974) p.1173.

獨裁者가 君臨하는 獨裁體制라고 말할 수 있다. 고로 北韓의 政治文化는 革命傳統과 唯一思想이 變數를 이루고 있으며 正統性 및 一體感 확보도 위의 效果的인 敎養에 있다.

먼저 北韓에서 주장하는 革命傳統이란 ① 民族解放運動의 선도적 역할과 ② 맑스레닌主義의 創造的 發展이다. ①은 正統성과 결부되며 ②는 이데올로기의 제시인데 北韓으로서는 大韓民國臨時政府와는 法統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1930年代에 史實을 造作하여 傳統(歷史)性, 法統性을 포함한 正統性 確保에 철저하였다. 어느 정도 社會의 構造的 交換에 成功한 北韓은 革命傳統의 內容을 주입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革命傳統의 계승방법에 대한 敎養을 실시하였다. 그것은 「革命傳統」理論을 「兩朝鮮解放(革命)」運動과 결부시켜, 日帝下의 惡條件에서도 抗日鬭爭에 승리하였는데 지금과 같은 좋은(?) 條件下에서는 赤化統一이 용이하다는 論理인 것이다.

다음, 맑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發展시켰다는 이데올로기의 제시는 프롤레타리아에 중성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歷史의 흐름과 付合되며 真理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党과 도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敎理인 것이다.³⁾

一般的으로 新生國에서의 政治指導者들은 指導權을 正當化하고 이를 說明해 줄 수 있는 一聯의 理論體系를 主張하는데 이것이 곧 政治的 ایده올로기이다. 新生國에서는 自國의 條件에 맞는 獨特한 政治形態를 開發하는데 比해 北韓은 람스-레닌主義에 입각한 全体主義政治體系를 確立함에 있어 革命傳統이라는 政治神話를 造作해낸 것이다.

둘째로 金日成唯一思想을 강조함으로써 政治文化形成에 影響을 주었다. 唯一思想敎養도 革命傳統敎養과 性格의 차이는 없지만 革命傳統敎養이 포괄적이라면 유일사상敎양은 具體적이고 集中的이다.

解放初期 北韓의 政治文化는 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大衆의 心理的 指向에 安住하지 못했기 때문에 唯一思想이라는 敎養을 통해서 金日成을 카리스마化한 것이다. 이리하여 北韓에서는 金日成이 共產黨組織에 있어서 刷新的 理論家로 추켜져 있으며 그는 共產革命에 있어서 戰略과 推進의 天才이고, 一黨政治, 國家管理經濟 등의 共產主義社會體制的 制度的 기초를 마련했다고 찬양되고 있다.⁴⁾

3) 李容弼, "北韓政治體系的 行懇論的 接近" 北韓 (1975. 8 月号) p.90 參照

4) Ibid., p.88 參照

한마디로 北韓의 政治文化는 맑스-레닌主義라는 이데올로기와 金日成思想이라는 도그마를 構造要素로 定立된 文化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政治文化를 特徵지우는 政治的 定向 (Political Orientation) - 認識的 (Cognitive) . 感情的 (Affective) 評價的 (Evaluational) 定向-이 政治社會化 過程에 의해서 變異되었음을 意味한다.

第 3 節 北韓의 政治社會化 機構 및 內容

政治社會化란 個人이 政治 (즉 支配-服從을 바탕으로 한 政治權力의 갖가지 表現)에 대해 갖는 態度나 價值를 學習하고 發展시키는 過程을 記述하는데 사용되는 用語이다. 政治社會化研究家들이 내세우는 가설은 아동기로 부터 政治的 成年期까지의 變化에 대해서 연결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社會化→個性 (personality) →政治的 信念→個人行態→行態의 全体的 (綜合的) 패턴이다.⁵⁾

5) Fred Greenstern, Personality and Politics, (Chicago, 1969) p.127.

政治社会文化의 機構 (agencies) 는 많다. 家庭과 學校는 勿論이고 政黨과 같은 政治集團, 歷史, 獨特한 政治的 經驗, 戰場, 政府의 教育的 努力 等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多樣한 社会化機構 中에서도 家庭이 主役割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學校를 다닐 때, 職業을 가질 때 또 同僚集團의 影響을 받게 될 때 等 많고 複雑한 機構에 의해서 社会化된다. 그러나 社会化機構 자체의 性格이나 政府의 의도에 따라 " 잠재적 社会化 " (latent socialization) 와 " 故意的 社会化 " (purposive socialization) 로 区分할 수 있다.⁶⁾ 前者는 非政治的인 社会化를 말하고 後者는 政治的 態度에 影響을 미치고자 고도로 계획된 社会化를 말한다. 北韓의 政治社会化가 " 故意的 社会化 " 임은 再論을 要하지 않는다. 共產主義社会에서의 政治社会化가 全住民을 획일적인 思想으로 묶어 共產主義社会의 건설이나 体制의 유지에 주력하는 것은 사실이나 政治社会化 機構를 運用하는데 있어서는 各國마다 차이가 있다.

東歐의 政治社会化를 研究한 볼기에스 (Ivan Volgyes) 에 의하

6) Dennis Kavanagh, Political Culture, (Macmillan, 1972) p.70.

면, 共產社會에서 가정, 교회, 非公式的 同僚集團 등의 1次的인 社會化機構가 가장 중요하나 東歐에서는 非共產社會와 마찬가지로 1次的인 社會化機構(가정, 교회 등)은 政府의 調整을 별로 받지 않고 있으며 어느 때는 兩者의 調整이 相衡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⁷⁾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다르다. 취학전의 社會化教育이 보다 철저하며 敎會나 非公式的 同僚集團이란 존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北韓은 公式化되고 획일화된 社會化教育이 出生과 더불어 실시되고 있다. 北韓 政治社會化機構의 性格, 敎育內容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家庭

家庭은 社會化過程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機構이다. 家庭은 어린이들의 어린 시절에 있어서 態度를 형성하는 基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時間的 의미에서는 家庭이 고려될 수 있으나 가정이라는 空間的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家族概念을 歪曲하는에서 연유한다.

北韓의 어린이는 產母의 出產후가만 끝나면 託兒所에서 幼兒시절을 보내게 된다.

7) Ivan Volgyes, op.cit., p.48.

그것은 아동을 일찍부터 가정의 품에서 분리시켜 퍼스낼리티가 固着되기 前에 集團속에서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改造하기 爲해 託兒所를 活用하는 것이다.

都市어린이는 生後 3個月 以上으로 부터 만 4세까지의 어린이를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는 동안 託兒所에서 保育하고 있고 農村어린이는 농번기에는 대부분이 상설 또는 계절탁아소에 수용되고 있는데 탁아소 현황은 <表1>과 같다.

<表1> 북 한의 탁 아 소 현 황

구 분 \ 년 도	1953년도	1960년도	1964년도	1968년도	1971년도
탁 아 소 수	64	7,626	11,043	18,592	23,251
탁 아 소 침 대 수	2,165	394,489	787,504	968,806	

資料 : 北韓全書 (中) 極東問題研究所, 1974. p.189.

※ 이중 농촌탁아소는 1973년 12월 현재 3,000개라고 함.

(조선중앙선감 1974년판 P.124 참조)

北韓의 탁아소에서는 小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는 各異한 形式과 方法으로 어린이들을 어려서 부터 아버지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

하도록 보육교양하고 있다. 8) 고 公式的으로 밝히고 있다. 즉
北韓 育兒教育의 目的은 가정적인 父母의 情보다 黨의 体温 밑에서,
黨의 干涉를 받으며, 黨의 首領을 정신적 어버이로 느끼며 자라나게
하는 것이요 父母들은 子息이란 觀念보다 이론바 全体人民의 아들,
달로 간주하도록 意識의 改造를 기하는데 있다. 9)

한편 北韓의 家族法에 나타난 家族의 概念을 살펴보면 "가족은
社會主義革命理論의 實習場이며 生産의 최저단위이다" 10) 라고 定義되
는데 이렇듯 가족形成의 目標은 社會主義教育場이라는 점과 生産手
段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고로 北韓에서는 "家族이 社會의 제 1
중요한 핵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의도적인 改革이 없이는 全体
社會의 改革이 不可能하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영역에서 보다는
가족에 대한 개혁시도가 집중되고 있다. 11)

北韓의 어린이는 가정에서 社會化되었다기 보다는 탁아소에서 社
會化過程을 겪고 있으며 가정도 母의 1)보강장치에 불과하다.

8) 조선중앙년감 (1974년판) p.214.

9) 朴在圭, 北韓社會의 構造的 分析 (서울:미네르바社, 1972) pp.155-6.

10) 北韓家族法 第1條 參照

11) 함병춘, "남북한 단일문화권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상)"
국토통일 (국토통일원, 1972.4) p.6.

뿐만 아니라 학교前 教育을 더욱 강화할 目的으로 1973년 4월 9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데 대하여」라는 法令을 採択하고 만 5살의 모든 어린이에게 1년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의 目的은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를 철저히 구현하여 만 5살의 어린이들에게 수령님의 어린 시절을 따라 배우도록 하여……」¹²⁾로 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 制度는 5살의 어린이들에게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이야기」 「공산주의 도덕」 등 思想 政治課目을 비중높게 敎育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의 價值觀形成에 있어서 헤스(Robert D. Hess)와 토니(Judith V. Torney)의 分類대로 蓄積型(accumulation model)의 政治社會化라고 말할 수 있다.

(2) 学 校

北韓의 敎育理念 내지 敎育目標은, 다음 3가지로 摘要할 수 있다. 즉 共產主義의 人間敎育, 生産勞動敎育, 唯一思想敎育이다.

共產主義의 人間敎育이란 共產主義의 比 見과 共產黨統治의 正統性

12) 조선중앙년감 (1974년판), p.213.

을 確信하도록 教育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社會主義의 人間 (스탈린이 말했던 대로 「特殊한 型의 人間」)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人間은 共產黨의 目的과 必要에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새로운 타입의 市民을 말하는 것이다.

生産勞動教育이란 「일하며 배우는 敎育」을 말한다. 北韓에서는 「生産實習을 통한 思想, 技術, 文化革命의 추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學生들에게 천리마運動을 강요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원산농업대학 등에는 천리마大學이란 호칭을 붙여주고 學生들로 하여금 農村, 炭鉏, 제련소, 공장 등에 나가 勞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敎育과 生産勞動을 결합시키는 敎育政策의 反映인 것이다.

唯一思想敎育이란 김일성을 神格化하고 英雄化하고 偶像化하여 소위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려는데 目的이 있다. 그러므로 김일성이 생각하는데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個人은 全体를 위하여 犧牲할 줄 아는 集團主義精神에 透徹한 人間으로 교양할 것을 敎育의 目標로 삼고 있다.

이러한 敎育目標아래 실시되는 敎育의 內容은 敎科書가 準則의 基準이 될 것 같다. 國土統一院이 北韓敎科書를 內容分析한 資料에 의하면 ① 김일성우상화 ② 反美, 反日思想 ③ 革命傳統敎養

④ 集團主義敎養 ⑤ 北韓体制의 우월성 등이 주된 内容이다.¹³⁾

이러한 内容을 學校授業, 革命傳統學習時間을 통해서 강의하거나 實際 勞動을 통한 思想教育을 시도하기도 한다. 한편 課外活動인 「社勞靑」 「사상검토회」에서도 위의 内容이 反復되어 주입된다. 그러나 과목에 따라 강조하는 内容이 약간씩 다른데 국어에서는 김일성의 우상화가, 국사에서는 계급투쟁과정으로 歷史를 이해시키려고 시도했으며, 지리에서는 南北韓比較를 통한 北韓의 우월성이 강조되고 있다.

以上에서와 같이 政治的 方向에 대한 學校의 無條件的인 服從은 以前의 政府와 關聯된 價值를 소지하고 있는 父母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効果的으로 北韓体制의 規範에 社會化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同僚集團

學校와 家庭은 社會化過程에 介入된 가장 분명한 機構이지만 그밖에도 態度形成에 있어 중요한 諸源泉이 存在한다. 그중의 하나가 社會的 職業的으로 同等한 地位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同僚集團('peer group')이다.

13) 「北韓敎科書分析」(國土統一院, 1972.5) 참조.

北韓의 同僚集團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社勞靑(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이다. 이 社勞靑은 만 14세(中學校 2학년)부터 30세에 이르는 靑少年들이 의무적으로 加入되기 때문에 一部 學校生活과 重複되어 課外活動이라고 말 할 수 있으나 北韓의 경우는 性格이 다르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社勞靑의 目的은 ① 소위 「先進的 思想」 즉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 ② 勞動과 建設, 난판과 鬭爭을 通한 敎育 ③ 원수를 증오하고 그들과 比拮적으로 鬭爭하는 정신을 함양 ④ 國際主義 정신으로 무장 ⑤ 先進科學과 技術습득이다.¹⁴⁾ 이러한 社勞靑은 새로운 價值를 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學校에서 습득된 社會化敎訓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점에서는 蘇聯의 「콤소몰」(Communist League of Youth)과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데 「콤소몰」도 역시 14~28세 사이의 靑年들이 加入對象이 되며 그 目的은 「새로운 소비에트人」을 만드는데 있다. 이 「새로운 소비에트人」은 個人의 利害를 보다 큰 共同体에 종속시키고 宗教組織과의 어떠한 유대도 回避하며 모든 國內 및 國際問題에 대한 黨의 立場을 주저없이 지지하는 것을 뜻한다.

14) 조선노동당출판사(靑), 김일성, 靑少年사업에 대하여, (동경:학우서방, 1966) pp.28-40.

그들은 当局이 규정한대로 인습행위 기준을 준수하며 다른 生活方式를 追求하거나 反文化(counter culture)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¹⁵⁾ 以上과 같은 「 콤포스물 」을 통한 * 새로운 소비에트人*의 形成이 北韓은 社勞靑을 통해 그대로 社會化過程에 적용된다.

北韓에는 社勞靑 以外에도 많은 社會團體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朝鮮職業總同盟, 朝鮮民主女性同盟, 農業勤勞者同盟 等인데 그의 역할은 (표 2)와 같다.

<表 2>

北韓 同僚集團의 역할

	職 給	女 盟	農 勤 盟
대 상	鉸山, 금속등 14 個 단체	만 18세 ~ 55세까지의 全女性	농 인
인 원	220 萬名	250 萬名	260 萬名
임 무	共產主義 교양 계급교양 기술·문화교양 생산능률제고교양 천리마운동의 지도	공산주의 교양 정치외식과 문화수준 의 제고 근로여성의 역할 인식	사회주의 농촌업무 의 촉진 사상, 문 화, 기술의 3대역 명 촉진 사상교양

15) Joel J. Schwartz. op.cit., p.41.

以上の 활동을 볼 때 同僚集團을 통한 社会化過程은 価値觀이나 政治觀 變化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탁아소에서 부터 시도되는 「故意的 社会化」의 답습 내지는 강화라고 評價할 수 있다.

(4) 政 党 (勞動黨)

全体主義體系에서의 政党的 存在는 政治社会化를 위한 강력한 기관으로 부각된다. 社会黨 및 共產黨은 19世紀 유럽에 나타났던 政治文化 樣態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세계적인 경제공황時 (1929年) 파시스트 및 共產黨은 치밀한 黨組織과 政治的 상징을 통해서 政治的 一体感과 方向提示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알몬드 (Gabriel A. Almond) 와 포우얼 (Bingham Powell) 에 의하면 政黨이 수행하는 政治社会化는 두가지로 구별된다고 한다.¹⁶⁾ 하나는 기능수행의 계속성을 제공함으로서 기존 政治文化를 강화시키 주고 다음으로서는 기존 정치문화 樣態에 대해 중요한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기능이다. 北韓은 解放初期, 傳統과 下位文化 (sub-culture) 를 단층화시키려고 勞動黨의 活動을 투입시켰는데 反해 지금은 共產主義의 人間으로 일단은 政治定向化 되었다고 보고 政

16) Gabriel A. Almond &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Little, Brown & Company, Inc., 1966) 참조

治文化를 지속 강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北韓은 勞動黨을 通하여 一體化意識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黨員이냐에 따라 신분보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情緒的 욕구충족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한편 勞動黨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한 理論敎育으로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大衆의 政治的 行態를 規定하기 때문에 政治社會化의 중요한 기능이라 말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勞動黨의 기능은 黨員을 社會化하고 大多數의 住民들에게 선전, 선동을 행하는 機構로서의 역할 뿐만아니라 또 다른 諸社會化機構들의 活動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모든 地方組織의 黨幹部들은 社會化活動을 감독하고, 기능이 弱化될 때 뒷받침해주고, 一次的인 社會機構의 活動에 많은 영향을 준다.

(5)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는 特定한 政治事態에 대한 情報을 제공하는 외에 는 오랜기간에 걸쳐 個人의 基本的 사고나 政治定向을 형성하는데 작용한다. 共產體系에서 統制的 매스.미디어를 통한 政治信念의

형성은 体制유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매스.미디어에는 텔레비, 레디오, 신문, 잡지, 단행본, 영화, 연극 및 前衛藝術이 포함되는데 北韓은 이러한 媒体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加하고 모든 것이 政府나 黨의 기관지 내 자는 官營放送 뿐이다.

신문. 방송의 매체는 비판의 기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政治社會化의 主題에 대한 一方的인 주입 뿐이다.

北韓新聞의 主題分布를 보면 (表3)과 같다.

< 表 3 > 北韓新聞의 內容別 分布

1. 金日成 우상화
2. 「革命傳統」 계승
3. 黨政策의 宣傳과 實踐강요
4. 경제건설
5. 南韓의 악선전
6. 祖国統一
7. 反美運動
8. 國際뉴스

資料：南北韓比較(国土統一院, 1973) 참조

文藝活動도 레닌의 주장처럼 党이 거대한 기계라면 文學・藝術은 그 기계의 볼트나 너트바퀴와 같은 部分品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政治社會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自명한 것이다.

第 4 節 北韓의 政治社會化 主題

지금까지 北韓에서 政治的 價值가 大衆에게 傳達되어지는 수단을 검토해보고 各 機構別 社會化의 內容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傳達되어지는 「메세지」의 綜合的인 性格을 究明해보고자 한다.

北韓에서 大衆에게 傳達되어지는 「메세지」에는 政治社會化에 肯定的 主題(Positive themes)와 부정적인 주제(negative themes)가 모두 포함되는데 前者는 公式的으로 표명된 價值를 말하고 後者는 모순된 價值(Contrary Values)에 대한 反對를 말한다. 즉 肯定的인 主題는 金日成 主体思想, 革命傳統, 集團主義, 맑스-레닌主義, 勞動價值, 不斷前進主義, 等이고 否定的인 主題는 反美, 反日, 反韓思想과 反資本主義, 反 수정주의 等이다.

以上과 같은 政治社會化의 主題가 시기에 따라 關心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는데 1966년~1972년의 7년간 노동신문에 보도된 主題別 頻度는 다음과 같다.

죽 ① 經濟成就(質的, 量的) ② 김일성思想(主体思想, 唯一思想)
 ③ 反美思想 ④ 反韓思想 ⑤ 勞動黨 ⑥ 反日思想 等인데¹⁷⁾ 긍정
 적인 주제로는 政治(勞動黨), 經濟的 기반의 구축과 이에 대한
 이해을로기로서의 김일성思想이 높은 頻度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
 인 주제는 韓國과 美國, 日本을 비난하는 内容이다.

한편 北韓의 教科書에 反映된 主題別 頻度는 (表4)와 같다.

<表4> 北韓教科書內容의 主題別頻度

主 題	頻 度					
	國語	歷史	自然	算數	計	%
共產主義 찬양 (긍정적주제)						
1. 共產主義理論	28	41	2	1	72	12 %
2. 史實 및 事件	14	38	4	-	56	9
3. 國 家	67	63	4	6	140	24
4. 人物 (김일성)	123	51	34		208	36
5. 經濟建設	16	5	19	12	52	9
6. 共產主義意識	3	51	2		56	10
反民主主義 (부정적주제)						
1. 民主主義理論	3	17	1		21	13 %
2. 史實 및 事件	18	2	1	7	28	18
3. 國家 (反日, 反美)	59		37	3	99	61
4. 人 物	2	10			12	7
5. 史 態	2				2	1

資料: 南北教育力量比較, (國土統一院, 1972) P.17 참조

17) 민병석, 「北韓의 統一政策에 관한 研究」, 北韓(1975.9月号) 참조

以上과 같은 北韓의 政治社会化 主題는 같은 共產國家이면서도 東歐國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불가에스는 東歐(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東獨,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에서 發行되는 党機關紙 50 種類에 대한 主題別 內容分析을 하였는데 北韓에서와 같이 個人에 대한 偶像화나 党에 대한 집중적인 主題는 없었다. (表 5 參照)

<表 5> 東歐의 政治社会化 主題

알 바 니 아	불 가 리 아
1. 反帝國主義	1. 社會主義建設
2. 社會主義建設	2. 反帝國主義
3. 社會主義的 道德	3. 社會主義聯合
4. 反個人主義	4. 反個人主義
5. 愛國主義	5. 社會主義的 道德
6. 反民族主義	6. 愛國主義
7. 反스타린主義	7. 反民族主義
8. 社會主義聯合	8. 反스타린主義
체 코 슬 로 바 키 아	헝 가 리
1. 反民族主義	1. 社會主義建設
2. 社會主義聯合	2. 社會主義的 道德

3. 反帝國主義	3. 反帝國主義
4. 反個人主義	4. 社會主義聯合
5. 社會主義建設	5. 愛國主義
6. 社會主義的 道德	6. 反民族主義
7. 反스탈린主義	7. 反個人主義
8. 愛國主義	8. 反스탈린主義
東 獨	플 랜 드
1. 社會主義建設	1. 社會主義建設
2. 反帝國主義	2. 愛國主義
3. 社會主義的聯合	3. 反스탈린主義
4. 反民族主義	4. 社會主義的 道德
5. 社會主義的 道德	5. 反個人主義
6. 反個人主義	6. 社會主義聯合
7. 反스탈린主義	7. 反帝國主義
8. 愛國主義	8. 反民族主義
루 마 니 아	유 고 슬 라 비 아
1. 愛國主義	1. 反民族主義
2. 反스탈린主義	2. 愛國主義
3. 社會主義建設	3. 社會主義建設
4. 反個人主義	4. 反스탈린主義
5. 社會主義的 道德	5. 反個人主義
6. 反帝國主義	6. 社會主義的 道德

7. 社會主義聯合	7. 社會主義聯合
8. 反民族主義	8. 反帝國主義

資 料 : Ivan Volgyes, " Political Socialization in Eastern Europe " Problems of Communism (11-12, 1973,) p.52

第 5 節 北韓住民의 價值觀 - 民族史의 正統性과 關聯해서

以上에서 北韓의 政治社會化 內容 機構 및 主題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過程을 통해서 政治的 態度, 信念 등이 形成되었다. 이러한 態度나 信念은 一定한 價值觀을 형성시켰는데 그 內容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저한 集團主義的 劃一化가 生活을 支配한다. 家庭이나 個人的 關係란 있을 수 없고 취미와 오락을 포함하여 個性을 강조하는 生活을 금지되어 있다. 家族關係나 對人關係가 이렇게 때문에 血緣, 地緣, 同窓, 친구의 橫的關係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全體에의 献身, 만일 큰 價值로 인정되는 것이다. 個人보다는 集團, 被支配階級보다는 支配階級에 의미와 價值를 부여한다는 것은

獨裁政治를 正当化시키는 것이며 批判이나 견제의 기능은 마비되고
만다.

둘째로 組織이 모든 生活을 支配한다. 조직속에서 個人의 思考
나 行動이 강요되고 生成되었기 때문에 單線的인 命令체통은 확립
되어 있지만 立體的인 사고의 영역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個人으
로서는 方向 감각을 잃고 만다. 이러한 조직생활의 영향으로 의식
구조가 단순화되고 또한 단순한 의식구조는 中庸과 보편성을 무시
한 극단적인 行動이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세째, 金日成個人에게 대한 絶對性的의 부여다. 政治, 經濟문제는
물론이고 文學, 音樂, 美術까지 金日成이 발전적 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모든 價值判斷의 기준은 金日成에게 있기 때문에 個人
能力의 평가에 있어서 客觀性이 欠乏되어 있다.

以上과 같은 價值觀이 民族史的 正統性에 입각하여 어떤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重要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民族史的 正統
性을 풀이한 崔昌圭教授는 民族史的 正統性(historical orthod-
ox)은 民族的 主体性(national identity)과 國家的 正統性
(legitimacy of state)과 文化的 傳統性(cultural tradit-
ion) 위에 成立한다고 했다.¹⁸⁾

18) 崔昌圭, "民族史的 正統性研究方法論" 統一政策 1卷2号(平和
統一研究所, 1975) p.55.

價值觀이란 文化的 伝統性の 次元에 속한다. 北韓은 唯物弁証法의 구조위에 伝統破壞와 歷史의 날조, 변질을 도모했고 5千年의 韓國史에 쌓아온 창조력을 계승할 수 없는 集團이 되었다. 한편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와 「革命的인 文化藝術」을 강조함으로써 固有한 民族文化가 破壞되고 文化라는 것이 오직 共產主義的 人間改造의 선도적 역할에 불과하다.

以上과 같은 기초위에서 형성된 北韓의 價值觀은 傳統的인 倫理道德觀이 변질되어 父母, 스승, 年長者에 대한 공경은 김일성에 대한 唯一思想으로 밀려났고 固有한 民族文化는 鬭爭의이고 革命的인 性格으로 변모된 것이다.

이렇게 볼때 北韓住民의 價值觀이란 民族史의 正統性에 크게 위배되는 異端文化라 결론지을 수 있다.

第 6 節 結 論

以上에서 北韓의 政治社會化를 통한 住民의 政治的 信念, 態度, 價值, 等の 形成過程과 그內容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價值觀을 形成시켰는데 그것은 김일성과 黨이 絶對的인 이하는 것과 집단주의적 환경에 의한 劃一性이 思考方式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政治社會化에 대한 우리의 關心은 무엇이 어떻게 形成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社會化의 連續性 여부에 대한 추이가 보다 중요하게 인식된다. 社會化過程의 連續性的 問題는 社會化機構의 機能과 社會化過程을 쥐고 있는 構成員의 意識과 관련이 있다. 社會化機構의 機能에 대해서 上述한바와 같고 構成員의 意識問題는 中共의 青年役割을 分析해 봄으로서 示唆를 받아보고자 한다.

毛沢東은 中國革命의 歷史的 展開에 있어서 青年의 기여를 인정하고 革命의 公同화를 위한 持續的인 參與의 必要性을 인정했지만 中共 青年들의 傳統的 行動主義에 대해 어느 면에서는 극히 의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青年學生은 抽象的인 自由에 과도한 價値를 부여하고 中國問題 解決을 위한 綜合的이고 訓練된 接近의 必要性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毛沢東은 青年들이 主觀主義와 自부심에 쌓여 있으며 中國問題를 馬스-레닌主義의 科學的 法則에 의하지 않고 分析함으로써 革命運動의 伸縮性을 無視하며 그 力量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이들이 主觀的 立場에 집착함으로써 타협은 不可能해지고 실제로 자만심이 反革命이 되고 있다고 述懷하였다.¹⁹⁾

19) Montaperto, op.cit., p.53 참조

이러한 中共靑年의 屬性에 대한 회의는 政治社會化過程에 대한 認識에 크게 影響을 주었고 結果적으로 文化革命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즉 中共靑年의 價值, 態度, 行爲類型은 여하한 시점에서든 革命의 必須要件에 부합되어야 하고 革命이 段階別로 進行됨에 따라 어떠한 것도 그 進행에 一致하여 變化하여야 된다는 것이 中共의 政治社會化의 基本 方向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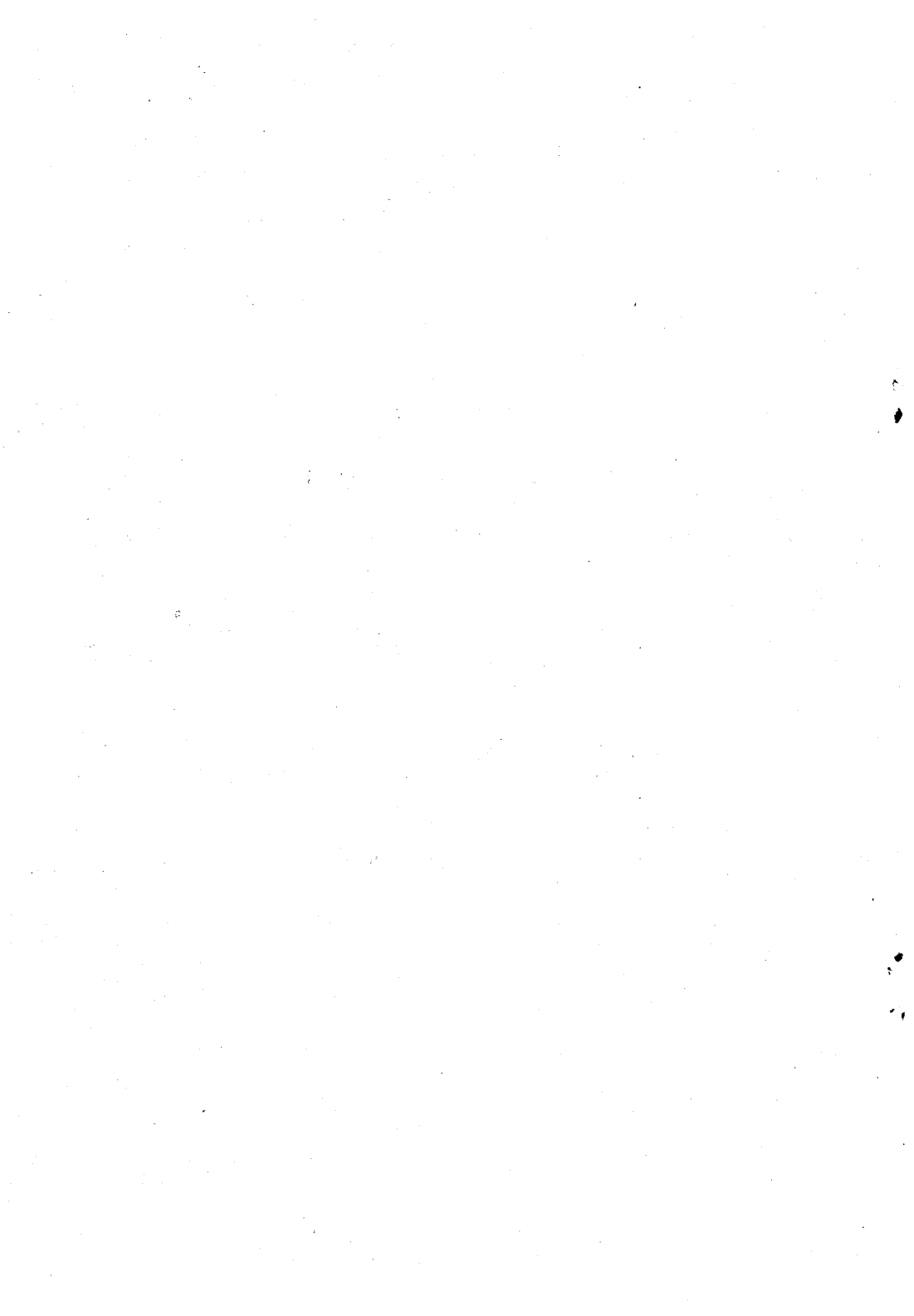
이렇게 본다면 社會化의 環境과 構造가 中共과 비슷한 北韓으로서 靑年들의 離脫可能性은 간과될 수 없다. 北韓의 社會化 過程에서 “條件反射의 原理”가 오히려 逆機能이 될 수도 있으며 特別히 經濟的, 對外的 要因이 肯定的인 社會化 經驗을 부여하는데 失敗할 可能性은 얼마든지 存在한다. 이러한 새로운 不滿과 壓力은 政治社會化過程을 非連續的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비록 政治社會化가 勞動黨의 主導的 役割에 의해 특수한 社會實態를 經驗하는 環境을 提供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合理的 知識의 獲得에 있어서 自然的인 要素가 있어야 한다. 강요없이 그리고 最大限의 自主性을 가지고 合理的인 知識의 獲得이 達成되어야만 政治活動과, 期待值(expectations)들과의 關係에서 심각한 갈등이 없는 政治社會化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第 4 章 綜合討議 吳 結論

金 順 圭

(慶南大學教授)



第 2 節 綜 合 討 議

이번 세미나를 통한 報告書의 目的은 南北間의 異質的인 政治體系, 이데올로기, 敎育, 文化構造 等の 周辺環境속에서 南北의 価値觀이 어떻게 形成되었는가 하는 諸過程을 把握하여 이것을 民族史的인 正統性에 입각해 定義해 보고 分析・評價해 보자는 것이었다.

먼저 첫 主題發表者인 尹泰林博士는 解放以前世代와 以後世代 사이의 価値觀의 相異性을 인정하면서도 人間의 本性은 원래 좋하다는 性善說에 입각해서 北韓의 価値觀 變化란 肯定的일 수 있다고 結論지었다. L. Rogers의 理論 等を 援用하면서, 40代 未滿의 解放以後 世代는 北韓의 統制된 体制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樹立된 価値觀이기 때문에 짧은 期間內的인 變化란 容易하지 않으나 長期的인 안목에서 본다면, 또 民族의 同質性이라는 立場에서 본다면 北韓住民의 価値觀의 變化란 不可能한 것이 아니라고 樂觀했다. 이에 대해 討論參加者인 林能彬教授(釜山大)도 동조하였다. 林教授는 “人間은 역시 人間이다”라는 명제때문에 金日成의 思想體制가 지금은 確固하지만 環境에 따라 人間本性으로 轉換되고 物理的인 제약이란 한계가 있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廉弘喆教授(慶南大)는 立場을 달리해서, 變化의 時機을 언제보 하느냐하는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최소한 우리世代에서 北韓住民의 價值觀의 變化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내다 보았다. 그 理由로 北韓의 解放以後 世代는 出生時부터 集團主義的인 環境아래서 획일주의적인 퍼스낼리티를 形成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合理的인 思考의 대두 可能性은 부인하지 않았다.

두번째 發表者인 金雨奎教授는 價值觀의 준거가 되는 것은 역시 民族史觀이기 때문에 南韓에서 民族史觀 形成의 要因, 成立시기, 전개발전 등을 考察하였고 北韓에서는 “唯物史觀의 外皮에도 불구하고 그 骨格은 거의 申采浩의 民族史觀의 줄거리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南韓의 民族史學은 日帝下 韓國民族史觀을 克服하고 있는데 비해서 北韓의 史觀은 侵略主義的이고 국수주의적이라 結論지었다. 討論過程에서는 金義煥教授(釜山女大)에 의해 民族史觀 形成時期에 대해 異論이 提起되고, 유물사관이란 外皮속에서 신채호의 民族史觀이 답습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金日成의 自主路線을 合理化시키기 위해 民族史觀을 결부시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유물사관이 核心이 아니겠느냐는 反論들이 提起되었다.

세번째 發表者인 廉弘喆教授는 北韓의 價值觀形成過程 特別 政治

社會化過程에서 北韓住民의 價值觀을 오직 共產主義의 人間으로 改造하는데 모든 매커니즘을 動員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형성된 北韓의 價值觀은 우리 民族의 傳統的인 倫理・道德觀이 變質되어 父母, 스승, 年長者에 대한 公敬심을 金日成에 대한 唯一思想으로 대체되었고 固有한 民族文化는 鬭爭的이고 革命的인 性格으로 變換되었다. 이렇게 볼 때 北韓住民의 價值觀이란 民族史的 正統性에 크게 違背되는 異端文化라고 結論지었다. 討論過程에서는 주로 北韓의 價值觀 變化可能性, 金日成死後 權力構造問題, 價值觀의 同質性과 統一과의 關係 등이 論議되었다. 特히 現在 北韓은 金日成 唯一思想으로 價值觀이 고착되었지만 科學技術의 進進으로 合理的인 思考가 一般化되고 어쩔 수 없는 外部文化와의 接觸으로 초기에는 반발하겠지만 外部文化에 대한 認識이 增加되리라는 展望을 하였다. 以上에 대한 結論은 다음과 같다.

第 3 節 結 論

- ① 北韓의 價值觀은 획일주의적이고 金日成과 黨에 대한 絶對性의 부여라고 要約할 수 있다. 이와같은 價值觀은 家庭, 學校, 同僚集團, 勞動黨, 매스・미디어 등의 社會化 機構에 의해서 深化

되어 당분간은 그 變化란 어려울다. 그러나 北韓을 둘러싼
內外事情, 人間의 本性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變
化하게 될 것이다.

- ② 北韓의 價值觀은 唯物史觀의 구조위에서 樹立되었기 때문에 우
리 民族의 傳統을 破壞했고 歷史를 날조·변질시켰다. 고로
民族史的 正統性이 欠한 價值觀이라고 말할 수 있다.
- ③ 南韓의 價值觀은 유교사상이라는 傳統的인 價值觀에다 解放以後
合理的인 市民精神이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南韓은 思想教育의 量的인 面에서 北韓에 뒤떨어져 있음으로
國家와 民族의 概念을 注入시키고 民族主体性을 強調할 수 있
도록 教育의 改編이 이루어져야 되겠다.